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제 3 강 하나님의 언약들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영택 (Translator's Friend)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목차 (Contents)

제 3 강 하나님의 언약들 (Divine Covenants)

I. 서론 (Introduction).....	1
II. 나라와 언약들 (Kingdom and Covenants).....	2
A. 고고학적 발견들 (Archaeological Discoveries).....	2
B. 성경적 통찰들 (Biblical Insights).....	4
III. 언약들의 역사 (History of the Covenants).....	7
A. 우주적 언약들 (Universal Covenants).....	8
1. 아담 언약 (Adam).....	8
2. 노아 언약 (Noah).....	9
B. 민족적 언약들 (National Covenants).....	11
1. 아브라함 언약 (Abraham).....	11
2. 모세 언약 (Moses).....	12
3. 다윗 언약 (David).....	13
C. 새 언약 (New Covenant).....	14
IV.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 (Dynamics of the Covenants).....	16
A. 우주적 언약들 (Universal Covenants).....	17
1. 아담 언약 (Adam).....	17
2. 노아 언약 (Noah).....	18
B. 민족적 언약들 (National Covenants).....	19
1. 아브라함 언약 (Abraham).....	19
2. 모세 언약 (Moses).....	21
3. 다윗 언약 (David).....	22
C. 새 언약 (New Covenant).....	23
V. 언약들의 사람들 (People of the Covenants).....	25
A. 사람들의 구분 (Divisions of Humanity).....	26
1. 언약들 안에 있는 사람들 (Within Covenants).....	26
2.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과 제외된 사람들 (Included and Excluded).....	28
B. 역학적 원리의 적용 (Application of Dynamics).....	29
1. 제외된 불신자들 (Unbelievers Excluded).....	30
2. 포함된 불신자들 (Unbelievers Included).....	31

3. 포함된 신자들 (Believers Included).....	33
VI. 결론 (Conclusion).....	35
VI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36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6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6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Kingdom, Covenants & Canon of the Old Testament

제 3 강 하나님의 언약들 (Divine Covenants)

I. 서론 (INTRODUCTION)

당신이 왕 곧 절대적 군주라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통치의 진보와 후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제국 밖에 있는 적들과 동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고, 당신의 나라 안에 있는 역적들과 충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것들은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볼 좋은 질문들이다. 무엇보다도 구약은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땅끝까지 확장하고 계시는 왕이신 신으로서 제시한다. 그분의 나라는 진보들과 후퇴들로 이루어진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반대자들과 지지자들이 있어 왔고, 그분의 나라 안에 반역자들과 신실한 종들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삶을 어떻게 통제하시는가? 성경의 대답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언약들을 통하여 다스리셨다는 것이다.

본 강의는 **구약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이란 강좌의 세번째 강의이다. 이 구약 일반 총론 강좌를 통해 구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고, 그 나라가 언약들을 통해 운영되고, 그 언약들이 구약의 책들 곧 "정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되고 적용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의 세번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들"이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세우셨던 일련의 언약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를 탐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의 윤곽을 파악하며 구약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언약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 안에서 언약들의 역사적인 발전상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의 역학적 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의 사람들을 탐구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들의 연관성을 다루어 보자.

II. 나라와 언약들 (KINGDOM AND COVENANTS)

지난 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 전체가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의해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언약”이란 개념도 구약 신앙의 핵심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살필 것이다. 구약에서 언약들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תְּבָרָה 브리트]가 약 287번 나오는 사실도 포함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인 구약 안에 “언약”이란 용어가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매우 핵심적인 성경 개념들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언약들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을 제공하는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발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들의 성경적인 연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볼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언약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관련이 깊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A. 고고학적 발견들 (Archaeological Discoveries)

구약에 대하여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구약이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사건들은 현재의 중동 곧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다. 우리 시대에 구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흥미진진한 일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최근의 고고학을 통하여 성경의 고대 세계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배경 지식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된다. 구약의 언약들을 이해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확실한 사실로 드러난다. 지난 세기에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문화들에 대한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은 성경의 언약들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여러 가지 다른 고대 문서들이 성경의 언약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목적상 가장 중요한 고대 문서는 종주-봉신 조약들로 알려진 문서 그룹이다. "종주"라는 용어는 라틴어 [*Caesar* 카이사르], 러시아어 [*Czar* 차르], 독일어 [*Kaiser* 카이저]와 같은 어근에서 유래되었다. 그것은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당연히 "봉신"이란 용어는 "종"을 의미하고, 조약에 있어서 "황제의 종"을 의미한다. 종주-봉신 조약은 한편의 강대국 황제(곧 종주)와 다른 한편의 약소국 왕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국제 조약이었다. 이 조약들에서 약소국 왕과 백성은 강대국 황제의 봉신 역할을 했다.

성경의 고대 세계는 제국들의 세계였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사고 방식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운영되었던 방식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고대 세계에서 애굽의 바로들, 히타이트의 강력한 왕들, 앗수르의 황제들과 같은 강대국 왕들은 약소국들과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거나 병합함으로써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키곤 하였다. 물론 모든 국제 관계가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제 관계들이 소위 종주-봉신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공인되고 운영되었다. 종주-봉신 조약들이 구약 연구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 주요 개념에 관심을 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왕들이 그들의 나라들을 잘 다스릴 목적으로 종주-봉신 조약들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조약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종주-봉신 조약들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드문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이 고대 조약들의 형식적 특징은 삼부로 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 것이다. 종주 봉신 조약의 첫번째 부분은 전문과 역사적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황제의 은택, 곧 황제가 그의 봉신들에게 베풀었던 호의들에 집중되어 있다. 조약을 시작하는 전문을 통해 황제는 자신을 찬양받을 만한 영광스런 왕으로 먼저 소개하고, 뒤따르는 역사적 서문을 통해 어떤 역사적 시기에 자신이 백성을 위해 행했던 많은 좋은 일들을 서술하였다.

종주-봉신 조약의 두번째 주된 부분은 봉신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황제의 봉신들에게 요구된 순종의 종류들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규칙들과 규정들의 목록들은 봉신들이 종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졌다.

종주-봉신 조약의 세번째 주된 부분은 봉신들의 충성과 불충성의 결과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충성하는 종들에게는 더 많은 복들과 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불충성하는 종들에게는 그들의 황제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주들 곧 처벌들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조약들에는 다른 요소들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조약 문서들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규정이 주어졌고, 조약들의 조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약들의 당사자들을 감시할 신들이 증인들로서 거명되었다. 그러나 종주-봉신 관계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강대국 왕들은 약소국 왕들과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은택을 선언했다. 종주들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의 봉신들로부터 충성스러운 봉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종주들은 그들의 봉신들의 충성과 불충성에 따른 많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결과들을 진술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종주-봉신 조약에 들어 있는 이 세 가지 중심적 요소는 구약의 언약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이러한 종주-봉신 조약의 중심 개념을 염두에 두며, 그 조약들이 성경의 언약들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에 대한 우리의 탐구에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B. 성경적 통찰들 (Biblical Insights)

먼저 말해 둘 것은 넓은 의미에서 언약(히브리어 [브리트])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들을 묘사한다는 점이다. 언약은 친구들, 부부들, 정치 지도자들, 부족들, 그리고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이 모든 관계들이 구약에서 언약으로 지칭된 것은 언약이 정식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서로에게 상호적인 의무와 기대를 가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들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다양한 언약 관계들에 비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으로, 가족 유대로, 그리고 친구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언약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언약들을 모두 다루지 않고, 오직 구약의 한 가지 특수한 유형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말한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이 언약들의 성격과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주된 관심을 둘 것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여섯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섯 언약들 중의 하나인 모세 언약을 먼저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종주-봉신 조약이 구약의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모세 언약이 우리의 목적에 특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느 다른 언약들보다도 모세 언약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보면, 그것이 고대 근동의 종주-봉신 조약들과 아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금방 밝히 드러난다. 모세 언약은 이 조약들에서 우리가 보았던 동일한 세 가지 중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택하셨던 방법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유사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한 특별한 단락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 19:4-6 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실 언약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

(출 19:4-6)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참으로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시내산 기슭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종주-봉신 조약의 세가지 중심 요소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종주-봉신 조약들에는 종주의 은택 상기, 봉신의 충성 요구, 그리고 충성과 불충성에 따른 결과들이란 세가지 주된 관심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모세 언약이 출 19:4-6 에 소개될 때, 이 동일한 세가지 주된 관심사들이 그 안에 나온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 밝히 드러내 보이셨던 그분의 은택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출 19:4 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출 19:4)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고대 근동의 황제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그들의 자비로운 왕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데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상기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은택의 맥락에서였다.

둘째로, 하나님은 백성의 충성을 요구하셨다. 출 19:5 말씀을 다시 들어 보라.

(출 19:5)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참으로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다.

고대 근동의 종주들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인간 봉신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 모세 언약이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종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으며, 모세의 율법은 그들이 충성을 보여야 할 여러 가지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그 백성은 당연히 언약의 규정들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

셋째로, 모세 언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인 충성과 불충성에 따른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요소는 출 19:5-6 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출 19:5-6)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참으로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고대 근동의 황제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이 충성하면 큰 복들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성하면 그들은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그들이 불충성하면, 그들은 이 큰 복들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종주-봉신 조약의 삼부 패턴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에 나오는 것을 본다. 종주들이 그들의 봉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주장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신적 은택을 인식시키셨다. 그 언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충성을 기대하는 사항들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불충성할 때 백성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 곧 복들과 저주들을 명시하였다.

모세 언약이 종주-봉신 조약의 이 세 가지 중심 요소들을 반영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군주으로 계시하셨다는 것과 그분의 백성이 자신들을 그분의 신하로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은 본질적으로 왕적인 협정이었다. 나라와 언약들이 긴밀하게 제휴되어 있는 것은 언약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언약들은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하나님의 나라 경영 정책들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규정하거나 운영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번째 주제 곧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의 역사적 발전상을 살펴볼 것이다.

III. 언약들의 역사 (HISTORY OF THE COVENANTS)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이르게 될 목표를 향해 전개되며 여러 시기 혹은 시대를 거쳐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각 시대 혹은 단계마다 그 백성이 겪고 있었던 특별한 문제들을 다룰 언약들을 도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사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세 개의 주요 단계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첫째 단계는 우주적 언약들이고, 둘째 단계는 민족적 언약들이고, 셋째 단계는 새 언약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구약의 전체 역사 동안 여섯 가지 주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들이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단계들을 묘사했던 방식들에 맞추어 이 여섯 언약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이다. 우리는 원시 역사 시대에 아담과 노아와 맺은 우주적 언약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가까이 부르셨던 시대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민족적 언약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룰 때, 구약 역사에서 전개된 주요 단계를 따라 묶은 세 그룹의 언약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원시 역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주적 언약들을 살펴보자.

A. 우주적 언약들 (Universal Covenants)

우리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우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원시 역사 시대에 이 언약들이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 그 대신 아담과 노아는 모든 족속과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표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들 이후에 올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이 우주적 언약들은 원시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것을 충족시켰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인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을 수립하셨던 때였다.

우리는 이 우주적 언약들을 검토할 때 시간의 순서를 따라 아담 언약으로 시작하여 노아 언약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고찰해 보자.

1. 아담 언약 (Adam)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 언약을 말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인간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 언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혹은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담 언약은 창세기 1-3 장에서 보는 창조 내러티브들 가운데 나온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공식적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근거를 “언약”이란 용어가 창세기 1-3 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3 장에서 하나님 언약의 기본적인 윤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세 가지 증거들이 있다. 첫째, 우리가 곧 볼 것이지만, 하나님 언약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창세기 1-3 장에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이 창세기 1-3 장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둘째 증거는 호 6:7 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호 6:7) 아담(혹은 사람)처럼 그들은 언약을 어겼다. 거기서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 많음을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죄와 비교하며 그들 모두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세번째 증거는 창 6:18에 나온다. 창 6:18은 성경에서 “언약”이란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최초의 구절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6:18)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번역된 용어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시작하다” 혹은 “개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언약을 “굳게 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노아 언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의 확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협정을 “언약”이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엄숙한 관계를 맺으신 것과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담과의 이 협정(혹은 언약)의 초점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근본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삶의 근본적인 패턴들을 세우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섬기도록 임명되었다. 그들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지만 장래의 소망도 받았다. 요컨대, 아담 언약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윤곽을 제시해 놓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담당할 역할에 대한 근본 사항들을 확립했다.

2. 노아 언약 (Noah)

두번째 우주적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다. 이 언약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보다 중심적인 문제들 가운데 몇 개만 소개할 것이다. 노아 언약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원시 역사 기간에 세워졌고 모든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6 장과 9 장에 언급되어 있다. 창 6:18 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라.

**(창 6:18) 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울(역자주: 히브리어 [헤킴]) 것이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미 말한 것처럼 노아 언약은 그 자체로 독립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혹은 협정)의 확립이요 확장이었다.

이 노아 언약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언약을 맺으셨던 때를 보면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창 9:9-11 에서 그 언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읽는다.

**(창 9:9-11) 내가 이제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들
그리고 . . .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 . .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로 멸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때부터 계속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미쳤다.

노아 언약은 창조 질서에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것은 당연히 안정의 언약이라고 불릴 수 있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짓기 쉬운 심각한 성향을 인식하시고 그분 나라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계시하셨던 것을 보았었다. 창 8:21-23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8:21-22) 그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내가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둬,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장기 전략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류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정해진 운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연계에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노아와의 언약을 확립하셨다. 이 우주적 언약도 아담과의 언약처럼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확립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목적들을 안전하게 하셨는가를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 무대로 나서게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시기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것이다.

B. 민족적 언약들 (National Covenants)

하나님 나라가 원시 역사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셨던 시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세 개의 민족적 언약을 세우셨다. 당연히 우리가 이것들을 “민족적 언약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두드러지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민족적 언약들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다음으로 모세 언약을,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을 살필 것이다.

1. 아브라함 언약 (Abraham)

첫번째 민족적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창세기 15 장과 17 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분명한 언급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첫번째 언급은 창 15:18 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서 “언약을 맺다” 혹은 문자적으로 “언약을 자르다(역자주: 히브리어 [카라트])”라는 표현은 언약 관계의 시작을 시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 후 많은 해가 지난 다음 하나님은 족장 아브람과 맺으셨던 언약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셨다. 창 17: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7:1-2)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세우겠다, 역자주: 히브리어 [나탄]).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승인하셨다” 혹은 “확립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먼저 맺으셨던 언약을 노아에게 확립하실 때 창 6:18 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비슷한 용어이다.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땅 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천상 나라를 온 땅에 임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첫째 단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본토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비전을 주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창 15:18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창 17:2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7:2)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세우겠다, 역자주: 히브리어 [나탄]).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러한 언약의 약속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질 소망들에 대한 영원한 비전을 주었다.

2. 모세 언약 (Moses)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번째 단계의 민족적 언약 곧 모세 언약으로 인도하셨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많은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발전시켰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세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의 근거가 아브라함 언약에 있음을 호소하며 말하곤 했다. 출 32:13에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간청했는지를 들어보라.

(창 32:13) 당신님의 종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당신님은 당신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 줄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맺으신 민족적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대치하는,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민족적 언약 위에 세워졌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출 19-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본다.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를 시내산 기슭에 모으셨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백성 곧 국가로 만들고 계셨다. 모세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칙들과 규정들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새로운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국가 안에서의 삶을 다스릴 법 체계 곧 법전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가를 인도할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로 모세 언약은 율법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기로 동의했을 때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헌신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출 19:7-9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

(출 19:7-8) 모세가 . . . 여호와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응답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두번째 언약이 모세와 더불어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언약인 것을 본다.

3. 다윗 언약 (David)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제국이 되었던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윗 언약도 민족적 언약이었므로, 당연히 이전의 모세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대하 6:16에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신실함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대하 6: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님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에게] 당신님은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이전 언약들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의 어느 때에 공식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 언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단락은 시편 89편이다. 시 89:3-4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음과 같은 말로 제시되어 있다.

(시 89:3-4) 나는 나의 선택자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영원히 내가 네 씨를 세울 것이다. 대대로 내가 네 왕위를 세울 것이다.”

이 구절들은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의 왕직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그의 가계(家系)가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에 복을 가져왔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왕국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국가적 복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속적인 왕의 승계 곧 왕조에 대한 안정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의 왕정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C. 새 언약 (New Covenant)

우리가 우주적 언약들과 민족적 언약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를 다스리는 언약 곧 새 언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5 개의 언약들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새 언약에 대하여 말했다. 그들은 새 언약이 그 이전의 어떤 언약들보다도 더 위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 언약이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락을 들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7장이다. 렘 31:31은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렘 31: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두어 번(34:25; 37:26; cf. 16:60) 이 동일한 언약을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했다. 겔 37:26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겔 37:26)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ESV 그들의 땅에] 둘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주님의 만찬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이 영원한 평화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바울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고전 11:25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전 11:25)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마지막 단계의 시기에 그분의 나라를 운영하고 계신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원시 역사 시대 동안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발전시키신 그분의 나라의 목적들을 완성하실 이 신약 시대 동안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 언약은 가장 적절히 성취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성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키실 때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받고 구속받아 더 이상 실패 없이 그분을 섬길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그분의 서약이다. 이 변화를 렘 31:31-34 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들어보라.

(렘 31:31-34)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 .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이 마지막 시기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단계로 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그분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시는 때에 비로소 충만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신약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 언약의 결과들도 역시 세 가지 단계로 온다. 새 언약이 가져오는 변화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기독교 교회 시대 동안 내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궁극적인 실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들의 전체 역사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맺은 언약들의 시행 배후에 있던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할 것이다.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에 걸쳐 그분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수단인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번째 주제 곧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각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배했는가?

IV.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 (DYNAMICS OF THE COVENANTS)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들을 맺으시거나 언약들을 확립하시던 시기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절들은 각 언약의 특별한 강조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 언약은 이러한 강조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의 역학적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다.

아담 언약은 이 세상의 시초에 세워진 기본적인 패턴들에 중점을 두었다. 노아 언약은 자연계의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역설하였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였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왕가로서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리고 새 언약은 성취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점들은 언약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묘사가 아니고, 다만 어떤 두드러진 특성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의 역학적 원리의 보다 충만한 모습을 보려면, 이런 강조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삶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단지 기본적인 문제들에만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노아 시대 동안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는 자연계의 안정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브라함 시대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반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를 그분의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시고 운영하셨다. 다윗 시대 동안 하나님은 다윗 왕조보다 더 많은 것에 비추어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가지셨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성취에 대한 강조가 가리키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언약의 삶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동일한 기본적인 배합 곧 우리가 고대 근동의 종주-봉신 조약들에서 보았던 삼부 구조를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삶의 역학적 원리에는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요구, 그리고 인간의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구약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구약의 각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원시 역사 시대의 우주적 언약들에 드러나 있는 이 역학적 원리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민족적 언약들에 드러나 있는 이 역학적 원리를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 드러나 있는 이 역학적 원리를 살필 것이다. 먼저, 원시 역사 시대의 우주적 언약들을 고찰해 보자.

A. 우주적 언약들 (Universal Covenants)

원시 역사 시대 동안 하나님은 아담과 근본의 언약을 세우셨고, 노아와 자연계의 안정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나 이 언약들 아래 있는 삶은 또한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인간의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이란 항목들로 요약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이 원시 시대의 각 언약에 대해서도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간단히 살필 것이다. 먼저 아담 언약을 살피고, 다음으로 노아 언약을 살필 것이다.

1. 아담 언약 (Adam)

첫째로, 하나님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도 그들에게 많은 은택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혼돈으로부터 아름다운 질서를 갖는 세상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시며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특권들을 주셨다. 이러한 호의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와 최초로 있을 언약 체결을 위한 길을 준비하셨다.

둘째로, 아담과의 언약은 또한 인간의 충성을 요구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형상들로서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 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셨다. 창 2:16-17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창 2:16-17)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논의할 여지 없이 인간의 충성은 아담 언약 시대 동안 언약의 삶에 요구되었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의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이 있었다. 매우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불충하여 금지된 실과를 먹으면 저주의 결과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창 2:17 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2:17)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암시적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크게 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담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하나님과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2. 노아 언약 (Noah)

아담과의 언약 외에 하나님은 또한 세 가지 모든 역학적 원리에 의해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택은 노아 언약을 위한 길을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통하여 전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창 6: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셨다.

둘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창 6:18-19 을 통해 노아와 언약 맺는 일이 노아의 책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들어보라.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6:18-19) 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 . .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모든 생물,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압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라.

노아는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남도록 할 책임이 있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아의 책임을 다시 말씀하셨다. 무엇보다도, 창 9:7 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고 거기서 번성하라.

노아 언약이 자연계의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하여 노아와 그가 대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셋째로, 노아 시대 동안 인간의 충성과 불충성의 행위들에 대한 결과들이 있었다. 노아 자신은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안정된 세상을 복으로 주셨다. 창 8:20-21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8:20-21)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그분 마음 속으로 말씀하셨다. “그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내가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분에 대한 반역이 심각한 저주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예를 들어, 창 9:6 에서 하나님은 살인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9:6)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이러한 언약의 삶의 세 가지 역학적 원리는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지속되었다.

B. 민족적 언약들 (National Covenants)

그런데 원시 역사 시대의 우주적 언약들에 적용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민족적 언약들에도 적용되었다. 약속을 강조하는 아브라함 언약, 율법을 두드러지게 하는 모세 언약, 다윗 집의 영원한 왕조를 역설하는 다윗 언약은 모두 종주-봉신 조약들의 패턴을 따랐다.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결과들이란 세 가지 역학적 원리는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들에 각각 들어 있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언약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필 것인데,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다음으로 모세 언약을,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을 살필 것이다.

1. 아브라함 언약 (Abraham)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후손과 땅의 약속을 강조했지만, 이 때에도 언약의 세 가지 역학적 원리가 작용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택을 베푸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보이셨다. 창 12:2 을 고려해 보라. 거기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어려운 일들로부터 보호하셨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도록 요구되었다. 창 12:1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창 12:1) 너는 네 고향, 네 족속, 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친히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그가 본 적이 없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창 17:1-2 에서 그분의 언약을 확립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충성의 요구를 상기시키셨는지를 들어 보라.

(창 17:1-2)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전적으로 약속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구약의 모든 언약에서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셨다.

셋째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복의 결과들에 특별히 유의하면서(창 17:2) 아브라함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창 17:1)를 다시 한 번 들어보라. 하나님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창 17: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복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창 17:2)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이 충성의 결과로 일어날 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와 대응하여 하나님은 또한 불충성이 심각한 저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 17:10-14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창 17:10-14)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내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울 내 언약이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 . .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적 충성의 헌신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고 언약의 삶의 복들로부터 제외당할 것이었다. 아브라함 언약과 밀접한 연관 속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역학적 원리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제했다.

2. 모세 언약 (Mos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두번째 언약은 모세 언약이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고 계실 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세 언약 아래 사는 삶에서 언약의 다른 역학적 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이다. 모세 언약에도 모든 역학적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 이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은택은 하나님의 율법들보다 먼저 나오는 역사적 서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러분은 출 20:2 에서 십계명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출 20:2)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의 언약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출 20:3 에서 제 1 계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충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충성의 요구를 지지하고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출 20:4-6에서 십계명은 충성과 불충성의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출 20:4-6)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 사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언약의 역학적 원리는 모세 시대로부터 다윗과 맺은 언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에서 지속되었다.

3. 다윗 언약 (Davi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마지막 언약인 다윗 언약은 다윗 가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조로 세우셨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정이란 선물에도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그 결과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시편 89:3-4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보라.

(시 89:3-4) 당신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자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영원히 내가 네 씨를 세울 것이다. 대대로 내가 네 왕위를 세울 것이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택을 반영하고 있다. 그분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조로 세우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충성을 요구하셨고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을 경고하셨다. 시 89:30-32을 들어보라.

(시 89:30-32)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 . . 내가 매로 그들의 범죄를 벌하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그들은 심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한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큰 복이 임할 것이었다. 우리가 다윗 시대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다윗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지속적으로 언약의 삶의 특징이 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의 각 언약 시기마다 세 가지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모두 나오고 있다.

우주적 언약들과 민족적 언약들의 삶을 지배했던 역학적 원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성취의 언약인 새 언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C. 새 언약 (New Covenant)

구약의 언약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을 때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에서처럼 성경적 언약들의 기본적인 역학적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로, 새 언약에도 하나님의 은택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때 포로 생활 중인 그의 백성에게 큰 호의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 렘 31:34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렘 31:34)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많은 방식으로 새 언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정하신 자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로, 새 언약에도 인간의 충성이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어느 누구도 면제시키지 않으신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렘 31:33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다.

(렘 31:33)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사랑을 주시므로, 그들이 열심으로 그분께 순종하도록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셋째로, 새 언약에도 충성의 결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렘 31:33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렘 31:33)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공식은 백성들이 새 언약의 의무들을 지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기의 패턴을 따라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행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제자(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 새 언약은 전체 교회시대 동안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완성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첫째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 사역을 마치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충실하게 지키셨다. 그분은 탄생 때부터 하늘 아버지께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셨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그분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은 매우 완벽해서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다. 히 10:12-14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히 10:12-14)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 . 그분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 희생 제사 때문에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 9:12-15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히 9:12-15)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피로 단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 . . 이런 이유로 인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려는 목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그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키고 죄에 대한 완벽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분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용서를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루신 구원 사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위대한 구원은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지속적인 사역에 달려 있다. 날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다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며, 히 7:24-25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히 7:24-25) 그분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그분이 재림하셔서 새 언약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히 9:28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히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고,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를 신뢰해 온 모든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거룩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에 관하여 읽을 때, 우리가 각 언약 시기의 독특한 강조점들을 기억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독특한 강조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에 있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삶의 각 단계마다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결과들이란 삼중의 역학적 원리를 수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 곧 언약들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V. 언약들의 사람들 (PEOPLE OF THE COVENANTS)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고 제외되었는가?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와 결부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의 구분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된 사람들에게 대한 언약의 역학적

원리의 적용을 살필 것이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살펴보자.

A. 사람들의 구분 (Divisions of Humanity)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약들의 사람들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 곧 신자들과 불신자들, 구원 받은 사람들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분에 잘못된 것은 없다. 이는 성경이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신자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사고 방식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곧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언약 밖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두 부류의 구분이 모든 사람들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사람들의 구분에 대한 보다 더 적절한 사고 방식을 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구분을 살필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들에 포함된 사람들과 제외된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살필 것이다.

1. 언약들 안에 있는 사람들 (Within Covenants)

첫째로,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 안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의 각 언약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언약들이 우주적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들에 의해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아담 언약을 통해 세워진 기본 원리들은 구원적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된다. 노아 언약을 통한 자연계의 안정성에 대한 약속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시 역사 시대 동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참된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에도 적용된다. 이 언약들도 각각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했다. 구약이 밝히고 있듯이, 여러 세기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로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전체 민족 안에서 단지 일부 사람들만이 참으로 믿었고 그들의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들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들의 사람들은 아담과 노아와 맺은 우주적 언약들의 사람들과 흡사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고려할 때 다른 한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새 언약의 약속에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언약 안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렘 31:34에서 어떻게 강조하였는지 들어 보라.

(렘 31:34) “더 이상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고 각 사람이 예외없이 주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의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 계속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완성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처음 땅에 오셨을 때, 새 언약의 소망들이 갑자기 혹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재림하실 때까지는 새 언약 안에도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있다. 한편으로, 새 언약의 사람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발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다고 선언받은, 참된 신자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새 언약의 사람들에는 구원적 믿음을 소유하진 못했으나 새 언약의 복들을 어느 정도 체험한 사람들 곧 참된 신자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한 포함된다.

요일 2:19에서 사도 요한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 보라.

(요일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감으로써]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였다.

여기서 요한은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들에 관하여 썼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우리에 속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독교 교회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겐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과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교회들의 명부들 안에 죄로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도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다 주장하지 못한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항상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신약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된 신자들과 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2.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과 제외된 사람들 (Included and Excluded)

둘째로, 우리는 어떤 언약들에 포함된 사람들과 제외된 사람들 사이의 구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곧 우주적 언약들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어느 누구도 이 언약들에서 세워진 기본적인 것들과 자연계의 안정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대한 상황은 변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일과 더불어 복잡한 일이 발생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안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언약들은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속으로 영입된 소수의 이방인들과 맺어졌다. 이것은 대체로 이방 민족들은 이 언약들에서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과연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주적 언약들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특별히 맺은 민족적 언약들의 사람들은 아니었다. 바울이 신자들이 되기 이전의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 보라. 바울은 엡 2:12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 밖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적 언약들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는 실제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언약들 안에 있었던 참된 신자들,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언약들 안에 있었던 불신자들, 이스라엘 언약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상황은 새 언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새 언약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 외에 우리는 세번째 부류 곧 복음을 거부하는 남자와 여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곧 교회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을 추가해야 한다. 구약 이스라엘의 시기에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지만, 새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 그리스도나 그분의 교회와 무관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주적 언약들은 모든 사람들 곧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한다. 민족적 언약들은 대다수의 이방인들을 배제하였지만, 이스라엘 안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또한 포함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때까지, 새 언약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제외시키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충성과 불충성의 결과들이란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이 다양한 그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또 하나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

B. 역학적 원리의 적용 (Application of Dynamics)

우리가 구약을 읽으며 그것의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추구할 때, 처음으로 구약을 읽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슷하게 사람들의 삼중 구분 곧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구분에 직면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이해한 후 그런 측면들의 원래 의미를 우리 자신의 시대에 연관시키려면 항상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에서 제외된 불신자들과 새 언약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 안에 포함된 불신자들과 새 언약 안에 포함된 불신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 안에 포함된 참된 신자들과 새 언약 안에 포함된 참된 신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1. 제외된 불신자들 (Unbelievers Excluded)

이 불신자들이 실제로 타락한 사람들로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담과 노아와 맺은 우주적 언약들에 참여한다. 그들의 삶은 언약들의 세 가지 역학적 원리들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로,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한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 5:45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 5:45)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 . .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종종 “일반 은총(보편 은혜)”이라고 한다.

둘째로,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창조주에게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타적인 언약들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적어도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어졌던 특별 계시에 대한 일부 지식은 갖고 있으므로, 이 지식은 그들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구약 혹은 신약의 믿음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일반 계시 곧 자연 계시를 통해 오는 하나님을 섬길 그들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롬 1:20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롬 1:20) 세상의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것들을 통해 알려져 분명히 보이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과 새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길 기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셋째로,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들에 대한 결과를 경험한다. 불신자들이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인 복을 주시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한 불신자들도 현명한 삶이 주는 이득을 경험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파렴치한 반역에 대하여 일시적인 저주로 반응하시는 일도 있다. 지금은 이렇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분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새 언약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은 오늘날에도 우주적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경험한다.

2. 포함된 불신자들 (Unbelievers Included)

우리의 관심을 끄는 두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들과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들 밖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비하여 이 언약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호의와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는 구원적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된 것에 따른 큰 이점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 교회의 일부가 된 것에 따른 큰 이점들도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들에 참여하는 것에 따른 이점들을 회고하며 심지어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왔던 이득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롬 9:4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롬 9:4)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주어진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들과 새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도 이 언약들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더 큰 호의를 베푸신다.

구약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율법을 받았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후손의 통치에 의해 복을 받았다. 이와 동일하게 신약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참된 신자들에 의해 섬김을 받는다. 그들은 말씀의 설교를 듣는다. 그들은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로 이 특별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호의를 받아 왔다.

둘째로,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이득을 얻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충성의 요구들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해 왔다. 그들은 이 언약들에서 제외된 다른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순종과 봉사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눅 12:18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눅 12:48) 많이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그분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충성할 책임이 주어진다.

셋째로,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또한 그들의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결과들을 경험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시적인 복들과 저주들을 경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단 한 가지 기대되는 일 곧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다. 히 10:28-29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

(히 10:28-29) 누구든지 모세의 법을 어기면 . . . 가차없이 죽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구별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마땅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혹독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언약의 피”에 의해 “구별된”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 곧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단 한 가지 기대되는 일이 있을 뿐이다.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들에게 보이신 자비가 매우 컸기 때문에 한층 더 가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결과들이란 역학적 원리가 더 강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적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포함된 신자들 (Believers Included)

우리가 구약을 읽고 오늘에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게 될,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된 신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택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를 포함하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롬 8:1-2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롬 8:2)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NIV]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충성스러운 순종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롬 8:7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대조하고 있던 이유이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의 율법에 복종한다. 그래서 바울은 롬 8:12-13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한다.

(롬 8:12-13) 그러므로 형제들아 . . .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의무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 의무가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할 성경의 규칙들과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구약의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시험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 신 8:2에서 모세는 그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치르도록 부름받았다. 고후 13:5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후 13:5) 너희는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검증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들이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은 확고하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입증해야 한다. 바울은 빌 2:12에서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빌 2:12)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셋째로, 구약과 신약의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충성과 불충성의 결과들을 경험한다. 한편으로,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복과 저주를 경험한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복들을 받았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자주 그의 백성에게 물리적인 복들도 주신다. 그러나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그분의 참된 자녀들을 단련시키신다고 설명했다. 히 12:6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히 12:6)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신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복과 저주를 함께 경험하고 있지만, 종국에 이르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구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마지막 결과만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들만 경험할 것이다. 계 21: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계 21:7)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강좌를 통해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세 부류로 구분되고 각 부류에게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족적 언약들과 새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 언약들 안에 있는 불신자들, 이 언약들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약이 처음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함축적 의미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구약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의 모든 단락은 원래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신분을 고려하도록 경고하고 격려했다. 오늘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우리의 신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모든 점에서 구약은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라고 초청했듯이, 오늘도 새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초청을 한다. 그리고 구약은 먼저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 안에 있던 불신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반한 것에 대한 가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보이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구약은 전에 구약 이스라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져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을 계속해서 소망하라고 촉구한다.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오늘을 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구약을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오늘의 우리는 구약을 읽으며, 어떻게 각 단락이 새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고 초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각 단락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향해 나가라고 초청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각 단락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충성을 하라고 촉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VI. 결론 (CONCLUSION)

본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소개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규정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구약의 각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그 역사의 여러 단계에서 요구하던 특별한 일들을

강조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갖는 기본적인 역학적 원리를 탐구하였고, 이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과거와 오늘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약 일반 총론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이란 주제로 자주 되돌아 올 것이다. 언약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삶의 구조들을 형성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오늘날에도 믿음의 삶의 구조들을 형성한다.

VI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1. 우리가 성경의 언약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무엇인가?
2.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성경의 언약들에 대한 통찰들은 무엇인가?
3. 우주적 언약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을 어떻게 진전시켰는가?
4. 민족적 언약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을 어떻게 진전시켰는가?
5.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을 어떻게 진전시켰는가?
6. 언약의 역학적 원리는 우주적 언약들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7. 언약의 역학적 원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언약들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8. 언약의 역학적 원리는 새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9. 모든 유형의 하나님의 언약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분을 묘사해 보라.
10.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는 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1. 당신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언약들의 세 가지 중심적 특징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방식들로 이 세 가지 특징이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관점들을 밝혀 주는가?
2. 이 강의에서 우리는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언약들의 이 근본적 요소를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충성 요구 그리고 충성과 불충성에 따른 결과들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복과 저주의 결과들을 담고 있었다. 당신이 현대 세계에서 이 역학적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측면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 자신의 삶에서?
4.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해가 어떻게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보는 당신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의 신분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것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5. 이 강의에서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